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1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은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2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은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3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은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2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3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 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4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후렴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9월 23일(수) 기도 담당 : 서원석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 도 자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찬 송 ..... 366장 ..... 다 함 께

기 도 ..... 이희만 집사

성 경 봉 독 ..... 여호수아 24:1~7 ..... 인 도 자

설 교 ..... 『역사는 하나님의 발자취이다』 ..... 이상학 목사

기 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 함 께

찬 송 ..... 542장 ..... 다 함 께

축 도 ..... 설 교 자

<여호수아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 일	본 문	제 목
9월 22일(화)	수 24:1-7	역사는 하나님의 발자취이다
9월 23일(수)	수 24:14-18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9월 24일(목)	수 24:19-27	세겔 언약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9월 22일(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며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더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잃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남기신 아름다운 발자취를 깨닫게 하시사 믿음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연약하고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대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나의 인생에, 또한 우리 가정의 세월 속에 남겨주신 주님의 발자취를 새겨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 품을 떠나 살지 않도록 저희를 주의 은혜의 사슬로 굳게 매어 주옵소서(찬송가 28장).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난 역사 속에 남겨주신 주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힘껏 전하며, 삶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시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이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이들과 가정들,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경제적인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로 인해 배움의 기쁨을 잃어 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원하옵기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한 교사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기독교교육이 이 나라 교육의 근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허락하신 목회비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도록 인도하옵시고, 협력하시는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새문안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저 북녘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